

HYUNDAI E&C TODAY

2016 / 12 / 22
Thursday
Vol. 327

04 맞춤형 R&D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다
Customized R&D targets the global market

06 숫자로 보는 2016 현대건설
The year 2016: Hyundai E&C by numbers

11 2016 연말공연 정리
Year-end performances 2016

News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현대건설 배구단의 연습 경기장. 지난 19일 찾아가 코트는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의 힘찬 기합과 스파이크 소리만이 가득했다. 휴식시간 짬을 낸 선수들이 귀여운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사슴으로 변신해 카메라 앞에 섰다. 현대건설 배구단 선수들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임직원 여러분 덕분에 힘내서 열심히 뛰고 있다”며 “전력을 가다듬어 올 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 배구단은 ‘2016-17 NH농협 V리그’에서 파죽의 5연승을 올리며 중간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A shout of concentration and sounds of spikes rang out inside the stadium of Hyundai E&C's volleyball team located in Yongin, Gyeonggi-do, when we visited on December 19. During a break, the players posed in front of our camera, wearing cute Santa and Rudolph costumes. They said in unison that they are working hard thanks to strong support from all Hyundai E&C employees, and added that they will do their best to win this season's championship cup. In the NH Nonghyup V-league 2016-2017, Hyundai E&C Hillstate volleyball team is ranked no. 2 with five straight wins.



현대건설 배구단이 전하는 송년 메시지

양효진, 김주하, 김연경, 박혜미, 황연주, 이다영, 에밀리 선수(왼쪽부터).

지구촌 누비는 현대건설 사회공헌, 결실을 보다

인도네시아 CSR 우수기업 선정, 임직원 사랑나눔 기금 성금 전달

현대건설 임직원의 이웃사랑이 연말을 앞두고 결실을 거두었다.

현대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등이 공동 주관한 ‘한국-인도네시아 CSR 포럼·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건설사 최초로 ‘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사회공헌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선정하고, 양국 간 상생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현대건설 서민중 자카르타 지사장을 비롯해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대건설은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수마트라섬 수질 개선 및 위생 교육 사업 ▶아체둥아 학교 보건위생 시설 개·보수 및 위생교육사업 ▶자카르타 식수 위생 개선사업 ▶보고르센



출 해피부브 봉사단 과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종합설계 직원 대표단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사랑나눔 기금’ 3억7000여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현대건설과 현대종합설계 임직원 3053명이 2015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1년간 급여 일부

를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 향후 임직원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급여 결산 사랑나눔 기금은 ▶에콰도르 마나비 지역 학교 지원사업 ▶인도네시아 짜레본 지역 위생시설 지원사업 등 4개국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과 ▶북촌 도시미관 개선사업 ▶종로구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내 사회공헌 활동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19일 임직원이 올해 1년간 급여 결산으로 모은 성금 3억7000여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CSR activities reach Indonesia

Hyundai E&C has been selected as the best company for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in the Korea-Indonesia CSR Forum and Award 2016,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jointly hosted b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donesia, KOTRA and Indonesia's Capital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This is the first time for a construction company to win the award. The event was designed to select the best companies that work hard to carry out CSR activities out of those doing business in Indonesia and to seek ways to secure win-wi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a group of representatives of Hyundai E&C and Hyundai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es visited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located in Gwanghwamun, Seoul, on December 19 to donate the “Love-sharing Fund” worth about 370 million won. About 3,053 employees of the two companies collected changes of their salaries throughout December 2015 to November 2016. The donation will be used for global CSR activities in four countries including the support for schools in Manabi Province of Ecuador and sanitary facilities in Cirebon of Indonesia, and also for domestic CSR projects aimed for the Bukchon urban beautification and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for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in Jongno-gu, Seoul.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 신고번호 종로 라00049

그룹사 소식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14기 모집

현대자동차가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이하 영현대 기자단)' 14기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콘텐츠 기획·취재와 영상촬영 2개 부문이며, 국내 거주 중인 재(휴)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생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영현대 기자단 활동이 20대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콜드플레이(COLDPLAY) 추가 공연 확정

현대카드가 2017년 4월 15일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2 콜드플레이(COLDPLAY)> 공연을 전격 추가해 총 2회로 진행한다. 4월 16일 개최되는 2회차 공연은 전날과 동일하게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오후 7시 진행된다. 공연에 대한 공식 발표 이후 추가공연을 마련한 것은 2007년 '현대카드 슈퍼콘서트'가 첫선을 보인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국내 최대 규모 공연장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해외 아티스트가 이틀 연속 단독공연을 개최하는 것 역시 역대 최초의 사례다. 현대카드는 예매 사이트 동시접속자 수 최대 약 90만 명, 예매 개시 1~2분 만에 전석 매진(약 4만5000매) 등 국내 팬의 폭발적인 반응과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팬들의 아쉬움을 접하고 1회 공연과 동일한 규모의 추가 공연을 추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수원 팔달구역 재건축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원시 팔달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이번 사업은 팔달구 우만동 129-7번지 일대에 위치한 주택가와 수원 우만현대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2개 동 규모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350억원이다. 총 1320가구의 단지로 재건축될 이 프로젝트는 2018년 10월 착공해 202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팔달1구역 수주를 발판으로 앞으로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총 4건, 8000억원이 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를 기록했다.



현장·부서 소식

연구개발본부, 빅데이터 세미나 실시

연구개발본부가 12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에 위치한 연구개발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빅데이터: 건설산업에 다가온 새로운 게임의 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신도형 교수를 초청해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약 4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신 교수는 사회활동, 문서 기반, 사물물 기반의 빅데이터를 건설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데이터의 축적 및 분석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통찰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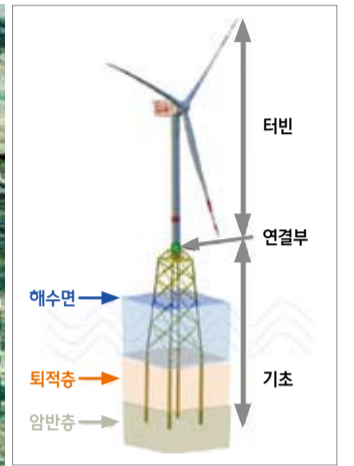
바다위 청정에너지로 신기후체제 이끈다

서남해 해상풍력 내년 3월 착공... 해상 하부구조물 및 풍력터빈 설치

우리 회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공사를 내년 3월에 착공한다. 서남해 해상풍력은 지난달 발전을 시작한 탐라 해상풍력(30MW)에 이은 국내 두 번째 해상풍력 단지로, 전북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실증단지 ▶시험단지 ▶확산단지 3단계로 총 2500MW의 해상 풍력시설을 건립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발전 6개사가 설립한 한국해상풍력으로, 두산중공업이 풍력발전기 공급을, 우리 회사는 1단계에 해당하는 실증단지의 풍력발전기 20기(3MW)와 대형 지지구조물 설치를 담당한다.



내년 3월 착공 예정인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의 위치도(왼쪽)와 해상 풍력발전기 설치 개요.



총 발전용량 60MW의 실증시설의 완공은 2019년이며, 총 사업비는 4500억 원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바다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저케이블을 통해 인근 군산의 산업 단지에 공급된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해상 풍력발전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바다 위에 교량을 건설하는 일과 비슷하다"며 "풍력발전기를 지지해 주는 철 구조물인 대형 제켓을 제작 및 설치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대규모 해양공사에서 쌓은 현대 건설의 시공 노하우와 기술력을 총동원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전남 진도군 울돌목 해상에 국내 최초 고효율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수중설치에 성공하는 등 해양에너지 분야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Hyundai E&C uses offshore clean energy to lead the new climate regime

Our company will kickstart the Southwest Sea Offshore Wind Farm project, the largest of its kind in Korea, in March 2017.

This project is the Korea's second offshore wind farm following the Tamra Offshore Wind Farm which delivered its first power at

the end of November. The three-phase project is aimed to build an offshore wind power facility with a capacity of 2,500 MW. Our company received the project from the Korea Offshore Wind Power, a special purpose company established by Korea Electric Power Cooper-

ation and six electricity generation companies. Doosan Heavy Industries is in charge of providing wind turbines and our company the construction of 20 units of 3-MW wind turbines and the large-sized sub-

60-MW demonstration project will be finished in 2019 and it is expected to cost about 450 billion won.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ject would supply electricity generated in the sea to the adjacent industrial complex in Gunsan through submarine power cables.

힐스테이트, 연말 수상 러시

우리 회사의 힐스테이트가 연말 시상식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표 아파트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 2016 그린주거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에 해당하는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헤럴드경제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그린주거문화대상은 친환경 주거환경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개념 주거공간을 창출해 온 건설사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우



리 외에도 우리 회사는 '제12회 토목건축기술대상'에서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가 주거용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연말 시상식에서 연이은 쾌거를 이어가고 있다.

'2016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 우수상 수상

우리 회사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물 재이용 및 용수 생산 기술개발'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주관하는 '2016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의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대자동차 경영세미나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은 그룹 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시상해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그룹 내 29개 계열사에서 총 81개 사례가 응모된 가운데 12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우리 회사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물 재이용 및 용수 생산 기술개발'은 고농도 오염 체질 폐수로부터 초순수 수질의 공업용수를 생산한 국내 첫 상용화 프로젝트다.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갱신 심사 통과

우리 회사가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대한전기협회(KEA)로부터 국내 원자력 발전소 입찰·시공·시운전을 위한 사전 자격 요건인 KEPIC 인증 갱신 심사를 받았다.

KEPIC 인증제도는 전력산업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평가·인정하는 제도로, 건설사가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행과 수주를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자격이다. 우리 회사는 원자력 부문의 기계·전기·구조 및 공조 등 시공 전 분야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재인증에 성공했다.



품질혁신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총 6차례에 걸쳐 KEPIC 인증을 갱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원전 시공 분야의 선두주자임을 입증했다"며 "지난 45년간의 원전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수감을 마친 만큼, 회사 품질보증시스템이 전일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힐스테이트자이논산' 12월 분양

우리 회사가 12월 중 GS건설과 함께 충남 논산시 내동2지구 C1블록에 '힐스테이트자이논산' 770세대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자이논산은 지하 1층~지상 19층 9개 동 총 770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74~84㎡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논산 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1군 브랜드 프리미엄과 중소형 물량이 100%를 차지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회사 분양 관계자는 "논산시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논산 내동2지구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아



파트인 만큼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약시킬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자이논산 모델하우스는 논산소방서 맞은편인 충남 논산시 내동 501번지 일원에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041-736-0770

Walking through a French fairytale Christmas

Dec 17

STRASBOURG, COLMAR, RIBEAUVILLE, RIQUEWIHR, France - This time of year, the entire eastern French commune of Ribeauville, Alsace, is decorated in a medieval theme for Christmas. Near the market entrance is a large booth where people wearing costumes like elves in green and red sell mulled wine in green cups with red and white patterns. The town looks small enough on a map, but by making a stop at almost every little shop and food stand it can quickly start to feel like an endless maze.

Alsace, known for having towns that look like they popped right out of a children's fairytale book, is full of smaller towns like Ribeauville and Riquewihr that help the economy by presenting seasonal items to visitors and offering them a chance to visit a Christmas dream town.

The outdoor experience was definitely much more refreshing than Christmas in Seoul, where Christmas is most fully felt at department stores or hotel lobbies.



Visitors gather around the Christmas market in front of Strasbourg Cathedral, one of the tallest churches in the world. Between the buildings are Christmas decorations, and one can climb to the top of the cathedral for a view of the city at night.

The journey began in Strasbourg, which has the biggest market of all. There are some shops that sell similar items, but each booth seems to have different prints, so it is wise to pick up things right away if you are inter-

ested in buying them. There are too many to look through and too many people looking at the same booth, so going into the same stores is almost impossible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keeping track of where you have

been.

There are wooden ornaments that are shaped like horses, bears, Santa and snowmen, and these are popular as they are easily brought back home as souvenirs for friends and family members.

When done looking around Strasbourg, one of the cities in the northern area, move down south, close to Colmar, another relatively large city. Colmar has an area called Petit Venice, which is decorated with waterways and buildings beside the water that make the area look like Venice.

One bridge in particular makes for an especially popular photo spot. While the trip from Strasbourg to Colmar takes about 50 minutes by car, other small towns, like Ribeauville and Riquewihr, are only about 15 to 20 minutes from Colmar.

By KOREA JOONGANG DAILY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Please describe the picture below.

In the picture, there are young students in white uniforms. Some students are holding up their hands. Thus, one can assume that they are trying to answer questions. The students are all sitting on the ground and they are surrounded with grass. The students are also surrounded by tall trees. Thus, one can assume that the students are studying inside the forest. The woman who is standing looks like the teacher. She is tilting her head toward a student that is raising her hand. Two students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are laughing. Hence, one can assume that the students are having a fun time.

Opinion Question 유형

Korea is well known for its rigorous education system. Describe Korea's education system.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s education system? (Stat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system.)

Korea's education system is known to be one of most rigorous education system in the world. When Korean students enter elementary school, their tiresome schedule begins. After school ends, most Korean students run to their academy. This is where they review and/or prepare various subjects, such as math, science, history, and more. Their academy ends at 10pm, or even as late 12pm. After the students arrive home, they start working on their homework. An average, Korean student claims to have about 4 hours of sleep, which is 4 hours less than the required amount. The Korean education system has various advantages as it helps foster many intelligent students. This is the prominent reason why Korea was able to develop as a nation. However, I believe that this education system also has various disadvantages as it greatly harms both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many young Koreans.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프랑스의 동화 같은 크리스마스 속으로

연중 이맘때 프랑스 동부 알자스(Alsace) 주의 리보빌레(Ribeauville)는 중세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장식된다. 시장 입구 근처의 큰 부스에는 녹색, 빨간색의 요정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빨간색과 흰색 패턴 장식이 있는 초록색 컵에 담긴 멀드 와인(Mulled Wine)을 판매한다. 리보빌레는 지도상으로 보면 작은 마을이지만 작은 상점과 음식 가판대를 하나하나 구경하다 보면 마을은 마치 끝없는 미로처럼 느껴진다.

아이들의 동화책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마을로 유명한 알자스주에는 리보빌

레, 리크위르(Riquewihr)와 같은 작은 마을이 많다. 이곳들은 관광객에게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을 팔고, '크리스마스 드립 타운'을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에 일조하고 있다. 백화점, 호텔 로비 등에서나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서울의 크리스마스에 비해 이곳의 야외 활동은 훨씬 활기가 넘친다.

가장 큰 시장이 있는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여행을 시작해 보자. 비슷한 물건을 파는 상점도 일부 있지만 부스마다 다른 프린트의 기념품이 있어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바로 집어 드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구경거리도 많고 같은 부스를 들여다보는 사람도 너무 많은 데다 지나온 길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같은 상점을 다시 찾기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말, 곰, 산타클로스, 눈사람 모양의 목각 장식품은 친구나 가족을 위한 기념품으로 특히 인기가 많다.

북쪽 지역 도시 중 하나인 스트라스부르를 둘러보고 나면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콜마르(Colmar) 근처로 이동한다. 상대적으로 큰 도시에 속하는 콜마

르에는 '작은 베니스'라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수로와 운하 옆 건물들이 베니스(Venice)의 느낌을 자아낸다.

특히 이곳에는 포토존으로 유명한 다리가 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콜마르로 가는 시간은 자동차로 약 50분 정도 걸리지만 리보빌레나 리크위르는 콜마르에서 15~20여 분 거리에 있다.

Key expressions

maze 미로
ornament 장식품
souvenir 기념품

Korean paper receives Italian seal of approval

Dec 16

Hanji, or Korean traditional mulberry paper, has been officially acknowledged as an appropriate material for restoring and preserving artifacts by an organization that operates under the culture ministry of Italy.

Italy's Central Institute for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Archival and Library Heritage (Icpal) has issued a certificate on hanji, Korea'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announced on Thursday.

Two types of hanji have won approval. Both are the types made by master hanji artisan Sin Hyeonse of Uiryong County, South Gyeongsang. The Italian institution conducts variou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aminations before issuing such certificates.

The news comes after more than a year of attempts by the Korean government, academia and civic activists to encourage Italy to restore its artifacts, such as ancient documents and paintings, using the Korean paper.

To prove its quality, hanji has already been used to restore five of Italy's important cultural heritage i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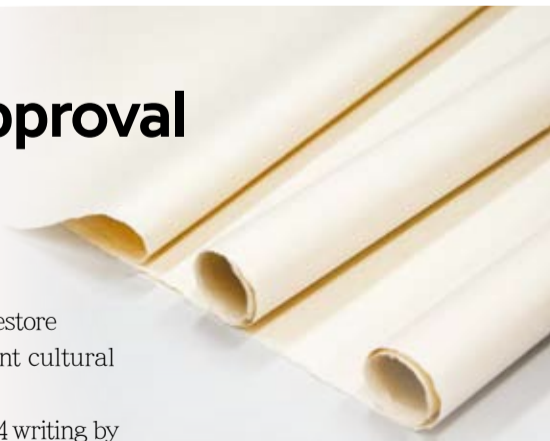
These include the 1224 writing by Saint Francis of Assisi (1182-1226) on a parchment measuring 10 centimeters by 13.5 centimeters (4 inches by 5.3 inches).

On one side he wrote the "Praises of God" and on the other, the "Blessing Given to Brother Leo."

This relic, according to Korea's CHA, will be on display at Icpal

to celebrate Korean hanji's reception.

Hanji is known for its durability, and pieces have been found that are over 1,500 years old. Due to its strength, Koreans have used it for many things, from window coverings to fans. By KOREA JOONGANG DAILY



Dec 1

Action, crime/ 143/ Korean



A high-intensity action flick cast with some of Korea's hottest stars is making its way to theaters just in time for the holiday season. Starring top stars Lee Byung-hun, Gang Dong-won and Kim Woo-bin, "Master" is high on the list of films for action fans to check out before the end of the year.

Jin Hyeon-pil, played by Lee Byung-hun, is a corrupt chairman who has been seizing opportunities through his own sly tactics. He has excellent speaking skills, is capable of disguising his intentions, and is a master of manipulating other people.

R&D 혁신 스토리 **맞춤형 R&D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다**

⑭ 싱가포르 난양공대(NTU)-현대건설 도시시스템 연구소 이홍성 부장대우 인터뷰

불고기버거, 요구르트 소스를 뿌린 그릭 맥, 빵 대신 난을 활용한 맥아라비아. 맥도날드가 내놓은 국가별 한정 메뉴들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두툼한 볼륨의 빅 맥 하나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던 맥도날드의 이유있는 변화처럼 특화된 사업 모델 하나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 회사 역시 다변화된 주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맞춤형 R&D'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그 시작점은 난양공대-현대건설 도시시스템 연구소다. 정리=이명주



NTU-현대건설 도시시스템연구소의 이홍성 부장대우(왼쪽에서 두번째)가 현지 연구원들과 난양공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싱가포르 이공 명문대로 불리는 난양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이하 NTU)와 협약을 체결하고 '난양공대-현대건설 도시시스템 연구소(NTU-Hyundai Urban System Centre)'를 오픈한 것은 지난 1월이었다. 개소식에는 프레디 보위(Freddy Boey) NTU 부총장과 고치 키옹(Goh Chee Kiong) 경제개발청 이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국내 건설사 최초의 대학-정부기관 공동연구를 축하했다. '현대건설 최초 글로벌 R&D 전초기지'라 불리는 도시시스템 연구소의 이홍성 부장대우로부터 올해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왔다.

Q 연구소의 설립 계기는 무엇인가?

발주처 주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NTU를 알게 됐고, 교류를 하며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의 R&D 지원이 활발하고, 신기술을 적용하기 전에 R&D 용역을 먼저 발주해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시장을 대표하는 우리 회사의 오랜 수주 텃밭이지만 최근 글로벌 건설사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현지 연구진이나 발주처와 기술네트워크를 맺으면 글로벌 선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업 수율을 미리 파악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장기간의 준비와 협상 끝에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의 지원을 받아 NTU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Q 3년간 총 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산업부산물물 재활용 ▶정삼투막(Forward Osmosis Membrane)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담수화 ▶부유식 해상플랫폼 모듈 및 계류시스템 ▶취·배수 시설 설계 고도화를 위한 해수유동해석 시스템 ▶지하공간 공사를 위한 초기 설계 등 5개 기술을 2018년까지 연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가운데 현지에서도 관심이 큰 기술로, 국토가 좁아 해양 매립이나 지하 공간 프로젝트가 활발한 싱가포르에서는 향후 관련 프로젝트의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아직 성과를 이야기하기에 성급한 시점입니다만 지난 1년간 저희는 기술연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발주처와 연구기관, 설계사를 방문하여 우리 회사의 보유 기술에 대해 적극 홍보했습니다. 대부분의 발주처들이 NTU와의 협업에 관

심을 보이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기술교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에서 단순 시공만 하는 것이 아닌 현지를 연구원으로 채용해 현지 대학과 연구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은 추후 사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싱가포르로부터 해외 연구기관 대상의 과제를 발주하는데 현대건설도 초청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물론 선발돼야 연구비 지원이 이뤄지겠지만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서서히 가시화되는 중입니다.

Q 연구소 운영에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지 연구원과 함께 일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소에는 8명의 현지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박사 학위를 막 취득했거나 연구에 몰두하던 사람들이라 기업문화, 특히 한국의 기업문화에 서투릅니다. 문화적 차이도 많고요. 글로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업

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저희 연구소는 과제 연구 외에도 행정 지원, 본사와의 가교 등 다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Q 국내 첫 산학협력 사례입니다. 현지의 관심이 부담이 되지않으신가요?

오염도 재활용과 담수화, 부유식 구조물 등의 과제는 현지에서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오염도 재활용 과제는 2014년 연구개발본부가 싱가포르 주룽도 시공사(JTC)로부터 수주해 성공적으로 마친 오염도 정화과제의 후속 프로젝트를 싱가포르에 실증플랜트 시설을 건립해 정화 및 중화 공정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기법으로 더욱 주목받는 이 기술은 JTC의 임원들도 "꼭 성공하길 바란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현지 기관이 주목하는 만큼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기대치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사업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현지의 현대건설에 대한 평가도 궁금합니다.

싱apore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은 상당

히 높습니다. 건설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회사 소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1981년 싱가포르에 진출한 이래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던 선배님들의 노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꾸준한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차 그룹과의 시너지도 브랜드 평가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세계 최초의 'Smart Nation'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AV(Autonomous Vehicle-무인자동차)분야의 협력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들려주세요.

싱apore는 우리 회사의 중요 시장이면서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마케팅을 펼치기 좋은 곳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 관련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글로벌 선진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NTU 교수진 등 현지에서 구축한 기술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회사 현장의 기술 이슈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 현장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NTU-현대건설 도시시스템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이홍성 부장대우.



난양공대-현대건설 도시시스템연구소의 5대 연구과제를 소개합니다

1 산업부산물물 재활용 오염 준설도 재활용

싱apore 산업단지 인근 연안의 오염된 준설토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정화공법과 산업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평가하는 실증 연구과제다. 화학약품 대신 싱가포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해 토양을 중화한 후 재활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높다. 현대건설-NTU 공동연구소는 싱가포르 내 다양한 현장의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수조원에 이르는 오염 준설토 정화사업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정삼투(FO)막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담수화

높은 압력을 이용하는 역삼투(Reverse Osmosis) 방식과 반대로 두 용액의 농도차를 활용한 정삼투막을 활용한 해수담수화(Forward Osmosis Desalination) 기술을 연구하는 과제다. 농도차가 클수록 운전효율이 높아 외부 압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공정에 적합하다. FO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NTU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현지에서 최적화된 공정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다. 향후에는 싱가포르를 물론 물 부족 국가의 수처리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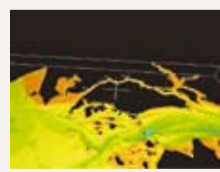
3 부유식 해상 플랫폼 모듈 및 계류 시스템

바다에 뜨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건설하는 기술로 공사비와 공기 절감 효과가 크고, 친환경적이어서 공간이 협소한 국가에서 환영받고 있는 연구과제다. 해상에서 부유체의 위치를 고정시켜 주는 계류시스템의 설계와 해석이 핵심 기술인데, 연구소에서는 부유체의 요동을 최소화하고, 규모 또한 대형화할 수 있도록 모듈 및 연결부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고 연안의 파도가 세지 않아 부유식 구조물 건설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이 어질 프로젝트의 다각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4 취·배수 시설 설계 고도화를 위한 해수유동해석 시스템

해양환경에 대한 관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플랜트 시설의 취·배수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과제다. 이를 위해 해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는 '해수유동해석' 시스템을 도입해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한 최적의 온배수 방류 조건을 선정 중이다. NTU와의 협업으로 싱가포르 해류의 특성과 경험을 공유한 첫 번째 다양한 모의실험을 통해 여타 지역의 해수유동도 분석 중이어서 싱가포르는 물론 동남아시아·중동·북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사업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5 지하공간 공사를 위한 초기 설계

국토 면적이 좁은 싱가포르의 다양한 국토 활용 방안 중 하나인 지하공간 건설은 우리 회사가 상용용 해저 유틸리티를 시공하며 그 능력을 더욱 인정받고 있다. 향후 싱가포르는 지하 물류시스템, 지하 급수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인 만큼 인공지능 기반의 예비설계 시스템 개발을 통해 관련 공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발주될 관련 공사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발파 터널 및 TBM 분야의 연구 경험을 공유해 싱가포르의 국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해외기업경영 트렌드 ⑱ 지멘스 SIEMENS

제품도 경영도 이젠 세계가 배운다

세계 틈을 다투는 글로벌 제조사, 재정 위기에 흔들렸던 독일의 구원투수. 유럽의 주요 제조 기업들이 경제 한파에 시달리는데도 나 홀로 7%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 지멘스의 이야기다. 내년 170주년을 맞는 지멘스가 오랜 기간 안정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글=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사진=지멘스 제공



1 독일 암베르크에 위치한 지멘스 스마트 공장. 초당 1개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이 공장은 불량률이 0.001%에 불과하다. 지멘스는 2018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공동으로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단지 스마트 데모 공장을 짓는다. 2 친환경 빌딩 중 세계 최고 층 건물로 알려진 타이베이 101은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해 연간 약 8억원을 절감하고 있다.

혁신1 반부패 개혁 가속화

10년 전 초우량 기업 지멘스(Siemens)에서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 터졌다. 지멘스의 간부가 2001~2004년 러시아,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지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뿌린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뇌물을 위해 조성된 비자금만 자그마치 4억6000만 유로(약 7000억원)에 달했다. 경영진의 책임 사퇴 이후 2007년 회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외부 출신인 피터 로셔(Peter Loescher)를 신임 CEO로 임명했다. 무려 160년간 이어진 내부 승진 전통을 깨고 외부 인사로 회사를 바꾸려고 했던 고육책이었다. 피터 로셔는 “지멘스의 모든 임직원들은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오로지 청렴한 사업만을 추구

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준법과 윤리경영을 택했다.

이후 지멘스는 경영진의 반부패 의지를 회사 전반에 전달하고 준법 문화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 프로그램(Siemens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했다. 사업 규모가 크거나 부패 위험이 예측되면 54개국 법인을 방문해 준법 로드쇼(Compliance Road Show)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영진의 반부패 의지가 회사 내로 확산되고 준법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경영성과도 좋아졌다. 2009년에는 매출 766억 유로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신뢰도 추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제도약한 지멘스의 변화에 대한 적극성이야말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흔히들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기술력’을 꼽기도 하지만 기업이 자신을 둘러싼 제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수한 기술력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지멘스의 반부패 개혁은 경영전략 측면에서 ‘변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라 하겠다.

혁신2 친환경 라인업 확대

지멘스는 과감한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를 추구해 온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한때 주력 부문이었던 반도체·휴대전화·원자력 사업 분야를 과감히 매각하고 1990년대 이후 제조업솔루션·에너지·헬스케어·도시인프라 등으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변화시켰다. 2000년대 이후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지멘스는 친환경 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지멘스는 환경보호를 주요 경영전략의 하나로 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왔다. 지멘스의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는 복합화력발전소, 지능형 빌딩자동화 기술 등과 같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시스템, 풍력 등의 신

재생에너지, 기타 친환경 기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연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 지멘스의 친환경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들이 절감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억2100만t에 달한다. 이는 베를린·런던·로스앤젤레스·모스크바·뉴욕·서울·도쿄 등 13개 대도시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다.

혁신3 독일 장인정신 결합한 기술력

1847년 10월 과학자인 베르너 폰 지멘스(Werner von Siemens)가 기계공인 요한 게오르크 할스케(Johann Georg Halske)와 함께 지멘스·할스케 사(社)를 설립하면서 역사는 시작됐다. 설립 초기에는 전신기를 제작해 부설하는 업체였으나 1848년 유럽에서 가장 긴 전선 가설공사인 베를린-프랑크푸르트 500km 구간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명성을 날리었다. 이후 산업용 기계와 철도 레일 등에 쓰이는 강철을 제작했으며, 1879년 전철 개발, 1880년대 들어서는 조명 부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 1919년에는 지멘스, 독일 가스, 독일의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AEG 등 여러 회사와 합병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쳐 1966년에 오늘날의 지멘스 모습을 갖추게 됐다. 현재 지멘스는 ▶발전 ▶송·변전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전력에너지의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등에 이르기까지 전력, 메디컬 영상, 임상 진단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멘스의 창업자인 베르너 폰 지멘스는 1890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까지 19세기 독일의 공업 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그는 확고한 경영 원칙이 한 가지 있었다. “나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미래를 팔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남긴 이 경구(警句)는 지멘스의 160여 년 역사를 지탱해 온 행동강령이기도 하다.

지멘스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35만1000여 명(2016년 기준)이 근무하

문어발 확장 대신 산업공학 강점에 집중 시장착한 기계, 초당 1개 제품 생산 전 세계 스마트 공장의 롤모델로 부상

고 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화 영역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멘스의 조 케저(Joe Kaeser) 회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맞닥뜨릴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화로 인한 이행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첨단 디지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4 ‘인재 수혈’로 R&D 경쟁력 강화

지멘스의 혁신 원동력 중 하나로 ‘기술력’을 빼놓을 수 없다. 창립자인 지멘스가 기술자로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앞장섰고, 그 전통은 169년 동안 이어져 왔다. 세계 최초의 발명품도 솔하게 내놓았다. 1905년 금속선을 이용한 백열등을 대량 생산한 데 이어 1958년 인공 심장 박동기를 활용해 이식 수술을 최초로 성공시켰다. 1965년 최초의 실시간 진단(Real time-Diagnose) 초음파 기계를 개발했고, 1980년 첫 디지털 방식을 띤 전화 교환 시스템, 2010년 최초의 통합형 분자자기공명영상(MR) 시스템인 ‘바이오그래프 mMR’ 개발 등 손에 모두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 같은 기술력은 막대한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멘스는 전 세계 연구개발센터에서 3만 3000여 명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과 1만 7500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신소재·신광원·메디컬 영상·미래형 공장·로봇·친환경 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R&D 투자액은 약 47억 유로(약 5700억여원)에 이른다.

모든 우량기업들이 그렇듯이 지멘스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멘스는 인재관리 시스템인 ‘SLE(Siemens Leadership Excellence)’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개인에게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인의 업무실적을 분석, 평가한다. 특히 지멘스는 젊고 유능한 내부인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들을 핵심 인재로 육성하고 있다.

지멘스는 직원의 주인 의식(Ownership Culture)을 고취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조 케저 회장은 “오늘날의 혁신은 고립된 공간(Silo)에서 천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지멘스가 생산하는 제품 종류의 50%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구성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원에게는 ‘왜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가’ ‘왜 야근에 일어나서 매일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가’를 답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왜, 무엇을, 어떻게 같이하는지가 분명하다면 자연스럽게 협업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케저 회장은 직원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위해 오래전부터 주식을 보유하도록 마련해 왔다. 지멘스에 근무하는 35만 명 이상의 직원 중 지멘스 주식을 가진 사람은 15만 4000명으로, 2020년엔 2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멘스의 주요 ‘세계 최초’ 기록

- 1879년 전력공급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철 개발
- 1905년 금속선을 이용하는 백열등 대량생산 성공
- 1958년 인공 심장 박동기의 이식수술 성공
- 1965년 실시간 진단이 가능한 초음파 기계 개발
- 1980년 디지털 방식의 전화교환 시스템 생산
- 1997년 컬러 액정의 유럽식 디지털 이동통신(GSM) 휴대전화 개발
- 2005년 다중투입 방식의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 출시
- 2006년 통합교통시스템 ‘루어 파일롯’ 설치
- 2010년 통합형 분자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시스템 출시
- 2011년 독일 이싱(Irsching) 복합화력발전소, 에너지 효율 세계 최고 기록 달성



3 지멘스가 선보인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장비. 촬영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움직임 조절하기 힘든 환자나 어린이 환자 촬영에도 용이하다. 4 지멘스 그룹 회장인 조 케저.

다사다난했던 2016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호 <사보신문>에서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기술을
뒤게 했던 자랑스러운 뉴스를 '숫자'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16 HYUNDAI E&C NEWS” TOP 8

숫자로 보는 2016 현대건설

‘DJSI 업종 선도기업 세계 1위’ ‘터키 보스포루스교 개통’ ‘쿠웨이트 대규모 가스플랜트 수주’ ‘평균 청약 경쟁률 100:1’의 공통점은? 바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회사가 이뤄낸 값진 성과라는 것. <사보신문>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명영광스러운 순간을 되돌아봤다. 글=이희정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 개통

지난 8월,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완성된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의 개통식은 터키 현지에서 화제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대형 교량인 데다 2013년 7월 착공해 불과 3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역사 앞에 현지인들은 ‘기적’이라는 찬사를 쏟아냈다. 특히 제3대교는 기존에 지어진 제1교, 제2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주탑 사이의 거리는 1.4배, 주탑의 높이는 약 2배 이상 큰 규모다. 전체 길이 2164m,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주경간장)는 1408m며, 2개의 주탑 높이가 각각 63빌딩(250m)을 훌쩍 넘는 322m다. 또한 연초 단일 순환 유동층 발전소로는 베트남 최대 규모인 ‘몽정1 석탄화력발전소’의 준공식이 열렸다. 우리 회사가 EPC 터키 방식으로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북부 지역 주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65억 kWh에 달하는 전력을 공급할 전망이다.

Turkey opens the Third Bosphorus Bridge The opening ceremony for the Third Bosphorus Bridge built based on our technology and know-how attracted a huge interest in Turkey in August. The mega-sized bridge project connecting Europe and Asia was completed within three years and two months after the construction began in July 2013, garnering great praises from the local people. The Third Bosphorus Bridge is incomparable to the previous two Bosphorus bridges in terms of size and length.

국내의 외주·구매 협력사와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다

협력사와 ‘아름다운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계속됐다. 우리 회사 임직원은 8월 ‘동반성장 결의대회’를 갖고 공정하고 수평적인 동반성장 조직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이를 시작으로 7300여 개 협력사(해외 포함)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졌다. 국내외 현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룹웨어 활용 동반성장 메시지 전달 ▶동반성장 화면보호기 등의 사내 캠페인을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갔다. 그 밖에도 우리 회사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사례를 소재로 한 ‘아름다운 동행 스토리 공모전’ 이벤트도 진행했다.

Teaming up to pave the way for win-win growth Hyundai E&C put various efforts into build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our subcontractors. A wide range of programs designed for around 7,300 subcontractors were held at home and abroad. Training programs for win-win growth were offered to employees holding the position of Gwangju or higher who are working at 29 overseas construction sites and domestic ones, and excellent subcontractors were invited to look around our construction sites abroad.



DJSI ‘업종 선도기업’, 4년 연속 ‘세계 1위’

우리 회사가 명실공히 글로벌 건설 리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한 해였다. ‘2016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평가에서 우리 회사가 굴지의 건설사들을 제치고 4년 연속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업종 선도기업(Industry Leader)’으로 선정됐다. ‘업종 선도기업’ 부문에서 4년 연속 정상에 차지한 건설사는 우리 회사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회사는 건설업 중 평균점수(54점)보다 월등히 높은 87점을 받아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그간 펼쳐온 친환경적 사업 운영, 협력사와의 상생 등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또한 우리 회사는 기후 변화 관련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인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CDP는 전 세계 90여 개국 5800여 개 주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관련 경영정보를 분석·평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DJSI와 함께 가장 신뢰성 높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Hyundai E&C tops the DJSI for four consecutive years This year, it has been reaffirmed that Hyundai E&C is the global lead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e were selected as the Industry Leader for four straight years in the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industry of the 2016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쿠웨이트에서 3조원 넘는 가스플랜트 ‘잭팟’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 3월, 쿠웨이트에서 대규모 수주 잭팟이 터졌다. 우리 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3조원이 넘는 대규모 가스플랜트 공사를 따낸 것. 공사 지분은 우리 회사가 15억2000만 달러(약 1조8500억원), 현대엔지니어링이 13억9000만 달러(약 1조7000억원), 한국가스공사 1650만 달러(약 200억원)다. 이번 수주는 우리 회사의 풍부한 플랜트·인프라 공사 수행 노하우와 기술력에 현대엔지니어링의 우수한 화공플랜트 설계 역량이 더해진 합작품이다. 특히 저유가 여파로 사업이 크게 줄어든 중동에서 민간(民官)이 손잡고 수익성 높은 공사를 따낸 신모델이라 더욱 값지다는 평. 현재 ‘알주르 LNG 수입 터미널 공사’ 현장의 공정률은 1.93%로, 설계 업무와 현장 부지매입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yundai E&C lands over three-trillion-won big plant order from Kuwait Our company successfully won a large-scale plant order amounting to over three trillion won from Kuwait in concert with Hyundai Engineering and KOGAS. In terms of stakes, Hyundai E&C has equities of 1.52 billion dollars (about 1.85 trillion won) while equities of 1.39 billion dollars (about 1.7 trillion won) and 16.5 million dollars (about 20 billion won) belong to Hyundai Engineering and KOGAS, respectively.



2009년 준공한 쿠웨이트 뉴오일피어 현장.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서울~원주 54분 소요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11월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우리 회사는 컨소시엄의 대표를 맡아 총 7공구 중 세 개(3-6-7) 공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과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을 잇는 총 길이 56.95km, 너비 23.4m 4차로 도로다.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사업비 1조 5397억원이 투입됐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상암나들목에서 강원도 원주까지의 거리가 종전 101km에서 86km로 짧아지고, 주행 시간은 77분에서 54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 밖에도 우리 회사는 문정6구역 지식산업센터, NH통합IT센터, 현대해상 하이비전센터, 당진화력 9-10호기 등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The 2nd Yeongdong Expressway opens The 2nd Yeongdong Expressway linking Gwangju in Gyeonggi-do and Wonju in Gangwon-do opened in November. As the project lead company, Hyundai E&C was in charge of three construction zones and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nstruction. The 56.95-kilometer expressway has four traffic lanes. The new highway reduces drive time between Seoul and Wonju to about 54 minutes.

신기술·국내특허인증으로 미래 성장 기반 다져

신기술 2건, 국내특허 64건 등을 신규로 인증받으며 미래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 한 해였다.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15% 이상 향상시키는 ‘건축물 외장재 설치 공법’과 공기를 이용해 증속속 오염 토양을 분리하는 ‘건식 오염토양 정화기술’은 각각 건설신기술 793호, 환경신기술 498호로 인증받으며 우리 회사 연구개발(R&D)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올해 9회째를 맞은 ‘현대건설 기술대전’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R&D 축제의 장’이다. 지난 9월에 열린 기술대전에는 150여 건의 기술이 출품됐고, 12건의 기술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뒤이어 11월에 개최된 ‘2016 현대건설 기술 콘퍼런스’ 역시 최신 선진 건설기술 동향과 미래 건설기술을 전망할 수 있는 자리였다.

Hyundai E&C obtains certification of NET and patents Hyundai E&C laid the solid foundation for the future growth by obtaining certification of two NETs (New Excellent Technology) and 64 patents in 2016. We reinforced our leading position in R&D with NET No. 793 (Method of installation of building exterior materials which can increase heat insulation performance of buildings by over 15 percent) and NET No. 498 (Dry remediation technology of contaminated soil which uses air to separate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프리미엄 브랜드 ‘다에이치아너힐즈’ 돌풍

역대 최대 물량이 쏟아진 치열한 분양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 ‘다에이치(H THE H)’의 돌풍이 뜨거웠다. 디에이치 1호 단지인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 ‘다에이치아너힐즈’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타사 대비 10%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1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4일 만에 완판됐다. 브랜드 선호도 1위(2016년 12월 부동산114 설문 결과)인 힐스테이트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올 2월 힐스테이트 녹번을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등 전국 요지의 분양을 모두 순위 내에 마감했다. 특히 광주시 쌍암동 일대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버파크’가 45.84대 1,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선보인 ‘힐스테이트 동탄’이 42.77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의 상품 유행 또한 다양해졌다. 우리 회사는 올해 아파트 상품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Hyundai E&C's premium apartment brand takes off Our new premium apartment brand, The H, created a buzz in the housing market where the largest number of new apartment units of all time were put on the market. The H Honor Hills, the redevelopment project of Gaepo Jugong Apartment 3, was in the limelight, with the average competition rate at 100 to 1.

임직원이나 하나 되어 펼친 이웃 사랑

임직원 자원봉사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나선 한 해였다. 우리 회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회공헌 시간은 총 3만5180시간. 또한 매달 월급 끝전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사랑나눔 기금 모으기’에도 올 한 해 3억7000여만원(현대종합설계 포함)이 모였다. 건설업 최초로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 단도 3기를 맞이했고,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현장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인 ‘집수리로드’도 전국 23개 지역 675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복합미관센터(정독도서관 타일 벽화 외) 창터공 지킴이’ ‘사랑의 재방 만들기’ 등도 올 한 해를 수놓은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또한 멀리 해외에서도 이웃사랑 실천은 계속됐다. 우리 회사는 연초 베트남의 ‘현대-코야가 드림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총 15개국, 25건에 이르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Hyundai E&C Employees join hands to do volunteer work Our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stepped up to help those in need by conducting a variety of CSR activities in 2016. Throughout this year, Hyundai E&C employees spent a total of 35,180 hours in participating in volunteer work as of November. Moreover, they donated about 350 million won this year through a CSR campaign.





2016 <사보신문> 만족도 설문조사

“올해 HYUNDAI E&C TODAY 어떻게 읽으셨나요?”

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요즘. 홍보실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이메일과 그룹웨어 게시판 등을 통해 '2016 <사보신문>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 총 1555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는 사보에 대한 솔직한 감상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글·정리=박현희

응답하라! HYUNDAI E&C TODAY

한국인 직원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독자가 읽지 않으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는 법. <사보신문>의 독자 인 임직원들은 사보를 얼마나 열독할까. “올해 사보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1%가 “읽었다”고 응답했다. 이 중 39%는 종이사보로, 61%는 H-Letter(그룹웨어 PDF·회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사보를 읽었다).

<HYUNDAI E&C TODAY>는 올해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사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사보신문은 현장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국내외 현장을 취재해 특집 기사로 다뤘다. 그 결과 가장 인기 있는 기사는 사내외 소식 및 뉴스(23.7%)와 현장 취재 기사(특집) (20.8%)였다. 내년엔 더 보고 싶은 사보 콘텐츠 역시 국내외 현장 소식(28.8%)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문화 기사(21.6%) 생활정보 기사(18%)가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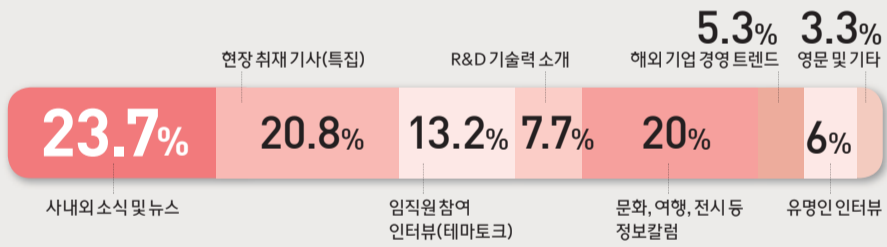
① 올해 사보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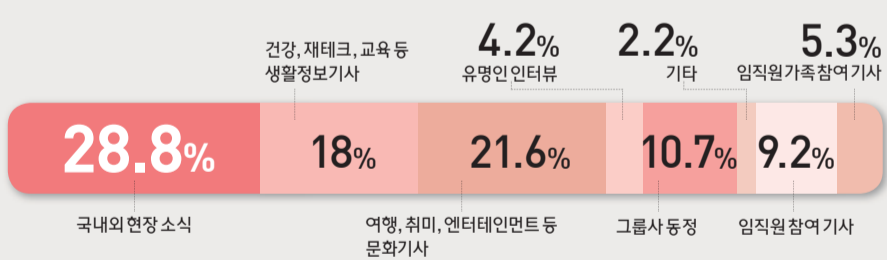
②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보십니까?



③ 올해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④ 더 보강했으면 하는 사보 콘텐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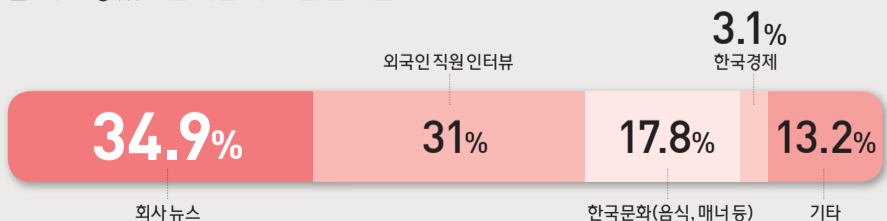
외국인 직원

올해에는 외국인 직원들도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54%의 외국인 직원들이 사보신문을 읽었다. 더 읽고 싶은 사보 콘텐츠는 한국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회사 뉴스(34.9%)였으며, 외국인 직원 인터뷰와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도 있었다.

① 올해 사보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② 더 보강했으면 하는 사보 콘텐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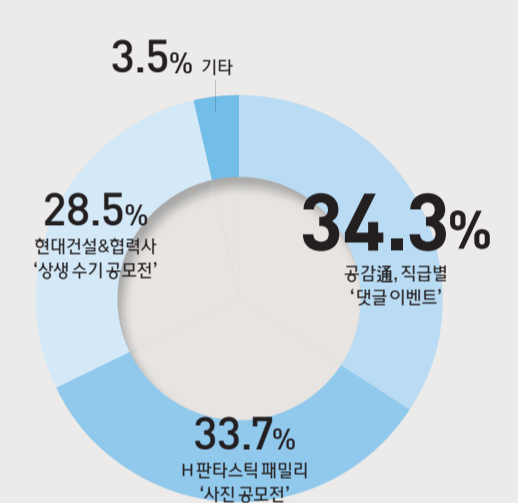
접속하라! 사내 이벤트 & H-Letter & '현대건설 사보신문' 페이스북

온라인 사내 이벤트 강화해야

올해 홍보실은 직급별 댓글 이벤트 ‘공감통’, 사진 공모전 ‘H 판타스틱 패밀리’, 현대 건설과 협력사가 함께하는 ‘상생 수기 공모전’ 등 직원·협력사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내 이벤트를 진행했다. 가장 인기 있는 사내 이벤트는 공감통(34.3%)이었으며, H 판타스틱 패밀리와 상생 수기 공모전도 33.7%, 28.5%로 전체적으로 고른 호응을 보였다.

내년에 참여하고 싶은 사내 이벤트로는 사진&그림 공모전(32.4%), 사우 가족과 함께하는 이벤트(22.5%), 댓글 이벤트(17.7%) 순이었다. 이를 볼 때 현장에서도 참여가 용이한 온라인 사내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벤트 참여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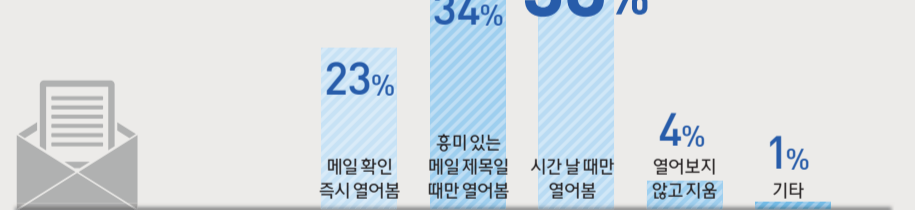
① 올해 진행한 사내 이벤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H-Letter의 선호 콘텐츠는 사보신문

H-Letter는 사보 발행 시 사보신문+동영상+그룹 콘텐츠+힐스테이트 매거진 등을 종합해 임직원 개인 메일로 발송하는 뉴스레터다. 설문 결과 임직원의 대부분(95%)이 H-Letter를 열었으며, 사보신문 콘텐츠를 가장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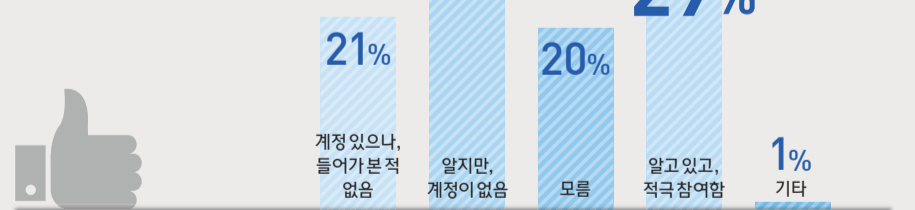
② H-Letter를 얼마나 관심 있게 읽으십니까?



'현대건설 사보신문' 페이스북, 직원 참여 콘텐츠 인기

응답자의 79%가 '현대건설 사보신문' 페이스북 페이지를 알고 있었다. 그중 29%는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벤트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29%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장 호응이 좋은 콘텐츠는 현직인의 출근길(28.7%), 현장 소개(22.4%), 현직인의 맛집(17%) 순으로 직원 참여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현대건설 사보신문' 페이스북 페이지를 알고 있습니까?



함께하라! Restart, HYUNDAI E&C TODAY

<HYUNDAI E&C TODAY>는 매년 콘텐츠와 디자인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래서일까, 사보신문 디자인과 콘텐츠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했다. 2011년 9월 창간한 이래 열린 소통의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임직원들의 기대를 적극 수용해 내년에도 사우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다.



계동산책 일본식 카레를 좋아한다면, 이 집!

호랑이카레

주소 서울 중로구 계동길 112
영업시간 11:30~22:00
(라스트오더 21:00, 월요일 휴무)
문의 070-4187-2046

추위가 한풀 꺾인 어느 날, 중앙고등학교 방면으로 나섰다. 크고 작은 공방과 식당들을 지나 중앙고교에 가까워질 무렵 호랑이 세 마리가 그려진 유리창을 발견했다. 일본식 카레 전문점 '호랑이 카레'. 좁은 입구와 달리 계단을 이용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28석 규모의 넓은 공간이 나왔다. 레트로 풍의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곳곳에 놓인 호랑이 인형들이 꽤 조화롭았다.

호랑이 카레라는 상호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 주인장이 호랑이를 닮았다는 뜻도 있지만 노랑 바탕은 카레를, 검정 줄 무늬는 훈제한 고기를 의미한다.

메인 메뉴이자 진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인 '호랑이 카레'에는 훈제 닭·돼지·소고기와 이탈리아 파슬리, 구운 파프리카, 초고버섯, 영콘 등 각종 야채들이 토핑으로 올라간다. '풀 먹는 호랑이'는 고기 대신 치즈 크림소스와 버섯, 죽순, 가지 조림 등이 올라가는데,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이 외에 진하게 우려낸

돈코츠 국물과 매콤한 돼지고기 토핑을 맛볼 수 있는 '호랑이 고기라멘', 오믈렛에 하이라이스를 듬뿍 얹어 주는 '스페셜 오믈라이스' 등이 준비돼 있다.

대관 서비스도 진행한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공간을 대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음식 포함 1인당 최소 3만원, 15명 이상부터 예약 가능하다. 1인당 5만원부터는 술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요리사의 능력이 닿는 한 원하는 메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송년·신년 모임 장소로 좋다.

글=박현희/사진=이슬기

1 호랑이 세 마리가 그려져 있는 외관. 2 레트로 풍의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3 '스페셜 오믈라이스'를 만드는 모습. 4 '호랑이 카레' (위)와 '호랑이 고기라멘'은 각각 1만2000원, 8500원.



4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 제시 시
2인당 맥주 1병 서비스
(1인 1매뉴 주문 필수, 17시 이후 주문시)
~2017년 2월말까지

차세대 리더보드 칼럼

초밥과 장인정신

얼마 전 가족들과 초밥을 먹기 위해 '맛집' 검색을 하던 중 일본의 초밥 장인 오노 지로에 대한 기사를 봤다. 26세부터 60년 이상 초밥을 만들어 온 그는 『미쉐린(미슐랭) 가이드』 최고 별 3개를 7년 동안 유지해 유네스코에 최고령으로 등재됐다. 그는 장사의 도구인 자신의 손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외출 시 항상 장갑을 착용한다. 음식에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를 최고로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의 초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1인분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원 전후임에도 예약 후 3개월은 기다려야 할 정도다. 힘들더라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선물하는 오노 지로는 진정한 장인이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우리 회사 직원들은 장인정신을 가졌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다. 국내외 현장에 근무하며 열정적으로 뛰어나고, 준공을 위해 노력했던 아름다운 기억과 시간에 쫓겨 혹은 귀찮아서 소홀했던 모습이 함께 떠올랐다. '과연 고객들은 프로젝트 결과물에 만족해 우리 회사를 다시 찾고 싶어 할까' 이 질문의 답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만큼 현장에 애정을 기울이고,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는 회사는 없었을까? 라고 확신한다. 다만 그 가치를 더욱 빛내기 위해 다소 진부한 단어일 수 있는 '장인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장인이 될 때 우리 회사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며, 오늘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23기 차세대 리더보드 / 품질혁신실
정승균 차장



문화책갈피 한해의 마무리는 독서로, 올해의 책

문화, 인문/교양, 비즈니스/자기관리, 가정/실용, 아동/청소년 등 각 분야에서 네티즌의 사랑을 받은 '올해의 책' 들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에스24



문학
그럴 때 있으시죠?
저자 김제동 | 출판사 나무의마음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토크콘서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의 에세이다. 책은 "저는 가끔 그런데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로 시작한다. 그간 '마이크'를 통해 나누지 못한, 방송인이 아닌 인간 김제동의 자전적 이야기다. 잘 살고 있는 걸까? 문득 인생이 불안할 때 보면 좋을 듯하다.



인문/교양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저자 설민석 | 출판사 세계사

〈무한도전〉으로 '핫'해진 스타 강사 설민석이 27명의 조선 왕들을 한 권으로 불러모아 핵심적인 주요 사건들을 풀어 썼다. 조선 후기 외척 정치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 왕좌를 둘러싼 치열했던 당파싸움의 비하인드 등 역사 시간에 단순히 외우는 데만 급급했던 사건들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싶다면 읽어 보기를 권한다.



비즈니스/자기관리
자존감 수업
저자 윤홍균 | 출판사 심플라이프

정신과 의사이자 '자존감 전문가'로 불리는 윤홍균 원장의 코칭이 담긴 책이다. "직장, 사랑, 관계 때문에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아 드립니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이 책은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2017년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도 좋겠다.



가정/실용
못 참는 아이 육하는 부모
저자 오은영 | 출판사 코리아닷컴

부모가 육하면 아이가 문제 행동을 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아이는 혼나지 않기 위해 그저 잠시 참고 견딜 뿐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육'하는 감정은 아이의 감정 주머니에 담겨 언젠가는 폭발한다. '육'하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모라면 필독하자.



아동/청소년
코딱지 코지
저자 허정운 | 출판사 주니어RHK

작가는 코를 자주 후비는 어린이들을 보며 '코딱지가 콧구멍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자꾸만 손가락을 부른다'는 상상을 했다. 책은 내 콧구멍 속에도 주인공 코지와 같은 코딱지가 살고 있는지, 콧구멍에서 코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밖으로 나간 코지는 어떤 모험을 떠날지 아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BEST 20

순위	책 제목	저자
1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설민석
2	그럴 때 있으시죠?	김제동
3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혜민
4	초판본 아들과 바람과 별과 때	윤동주
5	꽃도 꽃이다1	조정래
6	자존감 수업	윤홍균
7	표현의 기술	유시민
8	못 참는 아이 육하는 부모	오은영
9	종의 기원	정유정
10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백영옥
11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12	코딱지 코지	허정운
13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4	백종원
14	법륜 스님의 행복	법륜
15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16	지금 이 순간	기욤 뭈소
17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애달랐어요	프레드릭 배크만
18	대통령의 말하기	윤태영
19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매트 졸러 세이츠
20	나에게 고맙다	전승환

뉴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귀로 악보를 읽는 연주자 1곡당 1000번은 들었죠 CD가 못 쓰게 되더군요

‘하모니카 입에 물면 내 가슴엔 별이 뜨고 외로운 소리 위로 꽃이 핀다네. 내 맘 속 숨겨둔 많은 애기 저 바람은 알고 있을까’.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42)의 1집 앨범 ‘우리 젊은 날’(2004)에 실린 ‘나의 하모니카’ 가사 일부다. 전씨가 직접 노래도 불렀다. 그 ‘내 맘 속 숨겨둔 많은 애기’를 들으러 그와 마주 앉았다. 무슨 사연이 그리 많기에 그는 ‘나의 길 아직도 먼데 어디서 실 수 있나’라고 소망했을까. 마침 전씨가 30일 서울 성수아트홀에서 그의 음악적 스승을 기리는 헌정공연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글=박정호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 사진=중앙포토



Q ‘한국의스티비 워더’로 불린다.

시각장애 때문일 것이다. 알려진 대로 태어난 지 보름 만에 열병으로 시력을 잃었다. 특수학교인 인천해광학교에서 초·중·고를 마쳤다.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다. 학교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음악을 할 수 있었다.

Q 운이 좋더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그때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건 안마사뿐이었다. 나 역시 고교 졸업 후 생계 때문에 잠깐 안마사를 한 적이 있다. 요즘에는 뮤지션도 되고, 작가도 되고 장애인과 일반인의 경계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물론 외국에 비해 갈 길은 아직 멀지만.

Q 처음은 사물놀이였다.

중1 때 장구채를 처음 잡았다. 역사 선생님이 국악을 전공해 아는 사람이 많았다. 제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물적·심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원일(전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씨의 장구 솜씨에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Q ‘세계사물놀이 한마당’에서 대상도 받았는데.

고교 졸업 후 이듬해였다. 개인적으로 MVP를 수상했다. 그게 인연이 돼 김덕수 사물놀이패에 들어갔다. 흔히 ‘운철

하루 8~9시간 입술 틀 정도로 하모니카 연습 한 달에 한 개꼴, 200개 망가뜨려

음악 스승인 릴레망처럼 늙어서도 무대 서고 싶어

기삼(運七技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큰 행운이었다. 최고의 팀에서 활동하게 됐다.

Q 왜 사물놀이를 계속 하지 않았나.

1990년대에는 사물놀이팀이 많았다. 경쟁이 뜨거웠다. 우리 팀은 결정적 약점이 있었다. 앞이 안 보이기에 앉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상모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겠나. 발버둥치며 노력했지만 퍼포먼스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다.

전씨는 “그때만큼 절실한 때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뜻밖의 전환점이 왔다. 1996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재즈 하모니카의 대부로 꼽히는 벨기에 출신 투츠 릴레망의 연주를 라디오로 듣게 된다. 문방구에서나 파는 악기, 다른 주요 악기의 ‘조연’에 그쳤던 하모니카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들었다. “차갑게만 생각했던 작은 악기에서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다.

Q 릴레망이 지난 8월 94세로 타계했다.

처음 들었던 그의 연주 곡목이 기억나지 않는다. 발라드였던 것 같다. 하모니카에서 저렇게 풍부한 음이 나오다니, 무척 신기했다. ‘아마 악기 값이 비싸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일단 용산 음반가게에 가서 그의 음반을 구입했다. 종류가 의외로 많아 깜짝 놀랐다.

Q 앨범을 1000번 가량 들었는데.

악보가 없으니 청음으로 연습할 수밖에 없었다. CD를 틀고 트니 CD플레이어에서 음을 읽어내는 장치가 망가졌고, 그다음엔 CD를 못 쓰게 됐다. 정확히 세진 않았지만 곡당 1000번은 들었을 것이다.

Q 절대음감을 갖고 있나 보다.

뮤지션이라면 기본이다. 그렇다고 외워서 되는 게 음악은 아니다. 지금 돌아보니 릴레망, 그리고 주변 엔지니어들이 그런 음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알 것 같다.

Q 그런데 왜 릴레망인가.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분이다. 2004년 방한했을 때 만난 적도 있다. 나에겐 음악의 멘토 같은 분이다. 그의 연주는 특정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다.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재즈의 정신을 구현했다.

Q 하모니카도 많이 망가뜨렸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개 정도 새로 샀다. 하루 8~9시간씩 입술이 부르륵 정도로 연습했다. 들숨과 날숨을 받아들이며 음을 진동시키는 리드(reed) 부분의 종이 판이 자주 찢어졌다. 지금까지 200개 정도 나간 것 같다. 지금처럼 악기를 잘 다루지 못했던 때였다.

Q 헌정 공연은 어떻게 꾸미나.

릴레망의 대표곡인 ‘블루세트(Blue-sette)’ ‘이프 유 고 어웨이(If you go away)’ ‘더 데이스 오브 와인 앤드 로즈(The days of wine and roses)’ 등과 함께 다양한 재즈와 팝 음악을 준비할 예정이다. 하모니카 20년을 되짚어보는,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Q 스승의 절반도 살지 않았는데.

지난 20년은 나만의 하모니카를 확립하는 기간이었다. 큰 그림을 그렸다고나 할까. 음악이 좋은 게 은퇴가 없다는 점이다. 죽는 순간까지 연주할 것이다. 기력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맛이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 아흔이 넘는 릴레망의 무대를 본 적이 있는데 연주 중간에 처음의 음을 찾지 못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뉘야, 저게’라며 실망할 일도 아니었다.

전씨는 올해 경사를 맞았다. 세계적 하모니카 제조업체인 독일 호너 사가 선정한 ‘호너 아티스트’에 한국인 최초로 뽑혔다. 릴레망을 비롯해 팝스타 밥 딜런, 존 레논 등이 거쳐간 영예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너 장의 정규 앨범을 내며 한국에 하모니카 연주자도 상당한 뮤지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공적 덕분이다. 가냘픈 듯 폭발하고, 여린 듯 휘몰아치는 하모니카를 재발견했다는 평을 받았다.

Q 하모니카의 매력을 꼽아 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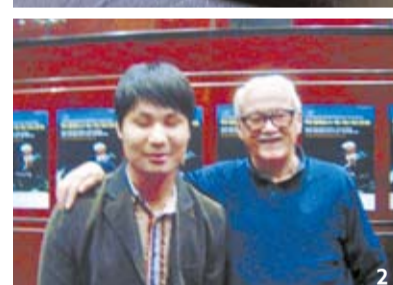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10분 정도 연습하면 간단한 동요를 연주할 수 있다. 그다음부터는 시간과 노력이란 피나는 대가가 필요하다. 하모니카는 150여 종류가 있는데 내가 쓰는 것은 크로매틱 하모니카다. 12개 구멍에 각각 날숨과 들숨을 쉬고, 또 각 음의 반올림 기능을 하는 버튼(단추)이 있어 총 48개의 음을 낼 수 있다.

Q ‘영혼의 소리’를 연주한다고 한다.

낮간지러운 평가지만 듣기에 나쁘지 않다. 하하하. 하모니카 하나로 하나하나 꿈을 이뤄 왔다. 처음에는 음반 하나 냈으면, 그다음에는 단독공연을 했으면, 그리고 다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면 바랐는데 모두 현실이 됐다. 해성에서 시작해 큰 별은 아니지만 작은 별은 된 것 같다. 3년 전 내 나이에 맞지 않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도 받았으나.

Q 음악적 재능은 누구에게 물려받았나.

어머니께선 노래를 못하셨다. 하루 별



1 전제덕씨가 30여 년간 사용한 점자시계와 하모니카. 2 2004년 방한한 투츠 릴레망과 함께.

어 하루를 살던 아버지께서 흥이 많으셨던 것 같다. 술 한잔 하시면 꼭 한 곡조 뽑으셨다. 젓가락 장단에 밥상이 많이 망가졌다. 그런 까닭일까. 어린 시절 들었던 가수들이 좋다. 조용필 노래를 자주 흥얼거린다. 밴드 ‘사랑과 평화’도 좋아한다.

Q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1집 앨범 녹음·믹싱을 마치고 마스터링(앨범 제작 직전 단계) 테이프를 들을 때 프로듀서가 뒤로 가서 혼자 울었다. ‘드디어 해냈구나’ 마음이 잔해졌다. 처음으로 낳은 자식이니가. 함께 있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다. 스태프들께 술과 고기를 돌리셨다.

Q 만약 눈과 하모니카를 바꿀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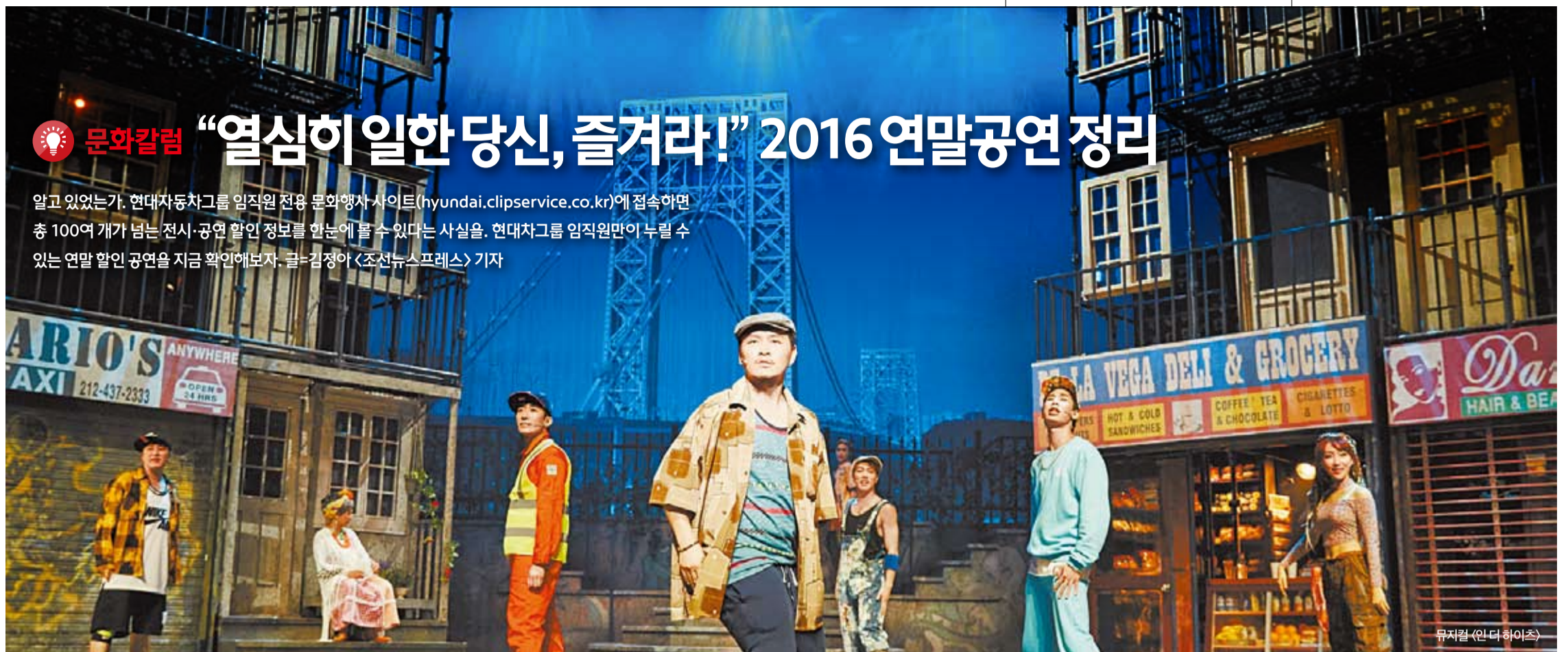
당장이라도 바꾸겠다. 사람은 눈을 뜨고 살아야 한다. 가장 먼저 제 얼굴을 보고 싶다. 그다음이 어머니다. 나를 알아야 남도 보이지 않겠는가. 여러 번 말했지만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받아들일 뿐이다. 체념, 혹은 절망하지는 않는다. 산목숨은 살아야 한다.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뮤지션 전제덕은

- 1974년 서울 출생, 태어난 지 보름 만에 시력을 잃음
- 1980년 특수학교인 인천해광학교 입학
- 1996년 재즈 하모니카 입문
- 2004년 1집 ‘우리 젊은 날’ 데뷔
- 2005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부문 수상
- 2012년 하모니카 연주자 최초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개최
- 2013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수상
- 2016년 한국인 최초로 호너(Hohner) 아티스트 선정

※ 호너(Hohner) 아티스트: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고의 하모니카 브랜드 호너(Hohner)가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식 아티스트를 선정한다. 팝스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밥 딜런,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스’의 멤버 존 레논 등이 대표적인 호너 아티스트로 꼽힌다.



문화칼럼 “열심히 일한 당신, 즐겨라!” 2016 연말공연 정리

알고 있었는가.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 전용 문화행사 사이트(hyundai.clipservice.co.kr)에 접속하면 총 100여개가 넘는 전시·공연 할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현대차그룹 임직원만이 누릴 수 있는 연말 할인 공연을 지금 확인해보자. 글=김정아 <조선뉴스프레스> 기자

사랑하는 연인·부부를 위한 공연

김건모 25th Anniversary Tour

원조 ‘국민가수’ 김건모가 5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최근 <미운 우리 새끼> <판타스틱 듀오> 등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가 연말 콘서트를 통해 ‘뮤지션 김건모’로 돌아온다. 댄스곡부터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완벽한 음악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25주년 기념 콘서트답게 그간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던 히트곡들을 선보인다.

정가 R석 13만 2000원(임직원 20% 할인)
기간 12월 31일
장소 잠실 실내체육관



는 사랑, 신혜철의 ‘그대에게’ 등 80~90년대 유행가로 구성된 음악은 관객들에게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정가 R석 9만9000원(최대 5만8000원 할인)
기간 ~2017년 1월 22일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뮤지컬 <당신만이>

대학로에서 장기간 사랑받고 있는 공연으로, 부부의 20대부터 노년까지의 인생 여정을 다룬 작품이다.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고민 중인 연인들, 하루에도 열두 번씩 싸우며 헤어질까 고민하는 신혼부부, 서로에게 익숙해져 ‘정’ ‘의리’로 살고 있다는 중년 또는 중년 부부 모두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

정가 전석 4만(임직원 30% 할인)
기간 ~2017년 3월 31일
장소 종로 한성아트홀 2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뮤지컬 <오리지널 드로잉쇼>

바로 눈앞에서 2m가 넘는 화폭에 자크 루이 다비드의 명작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 6분 만에 그려진다면 어떨까. 미술을 무대로 옮겨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이는 공연으로 그림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와 접목시켜 보여준다. 몸동작으로 완성하는 액션페인팅, 빛을 사용한 야광드로잉, 고흐의 ‘해바라기’를 재해석한 마블링 드로잉 등 다양한 미술 기법과 특수효과를 볼 수 있다. 36개월 이상부터 관람 가능하다.

정가 VIP 6만원(임직원 50% 할인)
기간 ~2016년 12월 31일
장소 중구 명보아트홀



뮤지컬 <인더하이츠>

이 작품은 뉴욕의 라틴 할렘이라 불리는 워싱턴 하이츠를 배경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애환이 담긴 삶과 꿈을 그려낸 것으로, 2008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었을 당시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국내에서 이

작품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화려한 출연진 때문. 양동근, 정원영을 비롯해 인피니트 김성규·장동우, 사이니키 등 차세대 뮤지컬 스타와 아이돌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정가 R석 13만원(임직원 5만원 할인)
기간 ~2017년 2월 12일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뮤지컬 <비밥>

공연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누구나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난버벌 뮤지컬이다. 개성 넘치는 요리사들이 일본의 스시, 이탈리아의 피자, 중국의 치킨누들, 한국의 비빔밥 등 네 가지 음식으로 실력을 겨루는 것이 큰 볼거리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아카펠라, 비보잉, 비트박스, 마셜아츠 등 다채로운 음악과 춤, 액션으로 표현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정가 VIP 6만(임직원 45% 할인)
기간 오픈런
장소 종로 시네코아 비밥 전용관



나홀로족을 위한 공연



콘서트 <옴 크리마스>

연말 공연은 즐기고 싶지만, 함께 즐길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공연도 나홀로 즐기는 ‘혼공’이 대세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정신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공연을 즐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멋진 방법이다. ‘옴 크리마스’ 콘서트는 혼공족을 위해 ‘혼공 남녀 ZONE’을 마련했다. 옴은 이날 콘서트에서 해당 관객들에게 커플 성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콘서트의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정가 전석 7만7000원(임직원 20% 할인)
기간 2016년 12월 24-25일
장소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

콘서트 <더파이널카운트다운 2017>

좀 더 역동적인 쇼를 원한다면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2017’에 주목하자. 화려한 일렉트로닉 뮤직과 힙합 음악이 함께하는 환상적인 카운트다운 NYE 파티다. 자이언티가 포문을 열고, 최근 발표한 신곡 ‘남아있어’로 사랑받고 있는 로꼬, <쇼미더머니> 시즌5 우승자 비와이 등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정가 1일권 8만8000원 / 양일권 12만원(임직원 25% 할인)
기간 2016년 12월 30-31일
장소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그랜드볼룸



그룹웨어를 통한 임직원 할인 정보

방법 1 그룹웨어 접속 ▶ 2 총무지원센터 클릭 ▶ 3 임직원 문화행사 할인 전용 페이지 확인

임직원 문화행사 할인 전용 페이지에는 뮤지컬, 연극, 콘서트, 전시 등 할인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연들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돼 있다. 이밖에도 장르를 불문하고 어떤 공연이든 단돈 1만원이면 즐길 수 있는 ‘만원 사랑’, 게시물에 댓글로 기대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 임직원 전용 문화행사 박스오피스 (12월 15일 기준)

분류	순위	작품명	공연 기간	관람시간(분)	티켓 정가(원)	할인	공연장
뮤지컬	1	작업의 정석	2015.9.4 ~ 2016.12.31	90	일반석 4만	75%	강남 순위아트홀
	2	판타스틱	2015.6.1 ~ 오픈런	85	VIP 6만 / R석 5만 / S석 4만	45%	NH아트홀
	3	당신만이	2015.4.3 ~ 2017.1.22	120	전석 4만	30%	한성아트홀
연극	1	죽여주는 이야기	2015.1.5 ~ 오픈런	100	일반석 3만	50~60%	대학로 삼형제 극장
	2	극적인 허룽밤	2016.1.1 ~ 오픈런	100	일반 3만	1만8000원	대학로 바탕골 소극장
	3	설렘홀츠: 진실게임	2016.1.1 ~ 오픈런	90	전석 3만	60%	대학로 스카이스이터
콘서트	1	갈갈이 패밀리 '개그콘서트'	2010.1.8 ~ 오픈런	90	성인 3만 / 초·중·고 2만	1만9000원	종로 갈갈이콘서트홀
	2	THE CRY X - MAS	2016.12.24	120	스탠딩 5만9000	20%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
	3	2016 심수봉 디너쇼	2016.12.24-25	120	VIP 25만 / R석 23만 / S석 20만	10%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



20세기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룡상성당. 오른쪽 사진은 서울 예술의전당에 전시된 룡상성당의 모형. Chappelle Notre-Dame-du-Haut, Ronchamp Photo Cemal Emden ©FLC/ADAGP, 2016.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展’

현대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 전시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이번 전시는 르 코르뷔지에 재단이 소장한 주요 건축물 모형과 드로잉, 유화 등 500여 점이 공개됐으며, 그가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4평짜리 집도 옮겨졌다. 특별관은 안도 다다오가 제자들과 함께 르 코르뷔지에를 기리며 만든 그의 건축물 모형 50점으로 채워졌다.

르 코르뷔지에는 ‘건축 혁명’이라 불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아파트를 처음 제안한 인물로, 현대 건축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마르세유에 지은 주상복합 건물은 현대 아파트의 원형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의 주거 양상을 바꾸어놓았다. 개파지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진 룡상성당의 둥근 지붕은 르 코르뷔지에의 최대 걸작이 됐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와 일본 등 7개국에 세워진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물 17점이 한꺼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10점인 것을 감안하면 르 코르뷔지에의 위상을 짐작할 만하다.

대중 전시로 기획된 만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데도 무게를 뒀다. 형을 더 사랑했던 어머니로 인한 모성에 결핍, 그의 성공만큼 논란과 시련도 컸던 이면의 삶도 들여다볼 수 있다. 1887년 스위스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나 건축 미학의 본고장인 파리로 보복을 넓혔고, 프랑스로 귀화했지만 주류 세력으로부터 끝없는 배척과 질시를 받았다. 냉대와 시련이 얼마나 컸던지 자식을 일부러 두지 않았다고도 전해진다. 그는 ‘단순함’을 신조로 꼽았다. “치장을 없애고 본질에 충실해야 해.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최고의 품격이지. 그걸 깨달아야 세상의 진실이 보인다네.”



1 열린 손, 29x42, 1963 ©FLC/ADAGP, 2016. 2 고양이와 여인 그리고 차 주전자, 100x81cm, 1928, 캔버스 유화 ©FLC/ADAGP, 2016. 3 르 코르뷔지에의 생전 모습. ©Centre Pompidou, MNAM-CCI, Dist. RMN-Grand Palais/Gisele Freund, reproduction de Guy Carrard 4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공동주택 유니테 타비시용. 337가구, 12층짜리 단일 건물로 올해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왼쪽은 르 코르뷔지에 특별관에 전시된 유니테 타비시용의 모형. Unite d'habitation, Marseille Photo: Cemal Emden ©FLC/ADAGP, 2016. 5 르 코르뷔지에가 아내와 말년을 보냈던 4평짜리 통나무집. 카바농, 1951 ©FLC/ADAGP, 2016 6 프랑스 몰리토 주택. Immeuble locatif a la Porte Molitor, Boulogne-Billancourt Photo: Cemal Emden ©FLC/ADAGP, 2016

2016.12.6~2017.3.26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00 ☎02-580-1300

